

# “귀농으로 행복 찾았죠”

윤종상·신용한 부부



◇언제나 그 자리를 지켜주는 도반. 윤종상 씨가 신용한 씨와 함께 서 있다.

## “땅에서 희망의 얼굴을 만납니다”

### 농촌공동체로 돌아간 386세대

‘열심히 공부해 좋은 학교 가라. 서울서 대기업에 취직해라.’ 우리네 부모들은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자식들도 그런 줄만 알고 자꾸 서울로 모여 들었다. 그래서 서울은 너무 비대해져 버렸고 농촌은 나날이 황폐해졌다.

2000년 1월 30일, 윤종상(33) 씨 부부가 10년간의 서울 생활을 접고 농사를 짓겠다고 황성으로 내려갔다. 그때 부인 신용한(33) 씨는 뱃속에 8개월 짜 ‘희망’을 키우고 있었고...

단국대 회계학과를 졸업한 윤 씨와 같은 학교 영문과 출신인 신 씨. 이 평범한 386세대 부부가 지금껏 우리가 살아왔던 세월을 거슬러 오르고자 마음먹은 것이다.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서울서 대학을 나오고, 돈 벌고 그 다음에 결혼하고 애를 낳고, 또 집을 사고, 그 다음에... 이것만이 사는 길은 아니라는 거죠.”

대학시절 운동권에서 ‘혁명’을 꿈꾸기도 했던 윤 씨. 그러나 윤 씨의 마음은 늘 농촌에 있었기에 첫 직장도 인드라망생명공동체의 불교귀농학교를 택했다. “제가 어릴 때 품앗이를 하려면 마을 회의를 했죠. 그러면 늘 어려운 사람 일을 먼저 해주는 거예요. 공동체란 말이 나오기 전부터 농촌에는 공동체 정신이 살아 있었던 거죠.” 윤 씨는 바로 그 농촌공동체를 찾아 귀농했다. 아내 신 씨도 흔쾌히 다른 삶을 받아들였다.

처음 원주 시내의 고등학교로 유학한 이래 윤 씨는 13년 만에 고향 황성으로 돌아왔다. 처음 1년 동안의 농사는 아버지의 방식을 답습했다. 아버지가 평생 일 귀농은 전답에서 함께 모를 심고 김을 매고 벼를 베었다. 땅은 정직하다고 했던가. 아버지의 예상에 한 치도 어긋나지 않게 한해 농사가 결실을 맺었다.

그러나 이듬해 2001년은 윤 씨에게 시련의 시간이었다. 봄철의 지독한 가뭄, 여름의 끈적한 수해, 소작을 얻어 지은 밭에서 일년 내내 땀 흘려 재배한 배추를 팔아 받은 돈은 고작 20만원, 그리고 농사 일의 스승인 아버지의 돌연한 죽음이 차례로 찾아왔다.

“무작정 비료를 끊어버리니까 논 of 지력이 떨어졌고, 그 상태에서 환경농업을 적용하니까 수확도 줄고 생산물도 형편없었던 겁니다.” 그래도 윤 씨는 환경 농업을 해 보겠다고 ‘우렁이 농법’을 고집스럽게 밀고 나갔다. 올해에는 농사를 짓다가 빛도 생겼다. “주위에서 드디어 진정한 농민 됐다고 축하를 해주더군요. 빛이 진정한 농부의 기준이 되는 농답같은 현실. 이게 농촌의 현주소랍니다.”

### 농사 3년...우렁이 농법 시도

“하지만 농사가 힘든 일만은 아니더라고요. 좋은 일도 많았죠.” 가장 좋았던 일은 연이은 생명의 탄생. 2000년 봄 첫째 희망이가 태어난 데 이어 2001년 둘째 해안이가 초보 농사꾼 부부를 기쁘게 했다. 공해에 찌든 도시가 아니라 싱그러운 대지를 밟으며 자라는 두 아이를 볼 때마다 윤 씨 부부는 백 번 잘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아내 신 씨도 “콩나물, 파, 푸성귀, 배추를 밭에서 바로 뜯어서 먹는 것이 너무 좋다”며 시골생활의 매력을 말한다. “다른 어떤 것보다 아이들에게 내가 스스로 키운, 오염되지 않은 음식을 먹일 수 있어서 가장 좋다”고 웃을 짓는다.

### “오염 안 된 음식 먹여 기뻐요”

2003년 네 번째 농사를 짓는 농사꾼 윤종상 씨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다. 무공해 농법에 대한 정부 인증을 받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고, 지력을 돋우면서 화학비료를 줄이는 노력도 해야 한다. 우렁이를 무사히 내년 봄까지 번식시키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인데다, 우렁이 농법을 함께 하겠다는 사람들의 신청을 받고 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품앗이, 두레 등 옛 풍속이 많이 사라져버린 농촌 공동체를 살리는 일, 황성농민회 회원들과 생활협동조합을 꾸려 농산물의 판로를 개척하는 일, 여성농민회 회원들과 영유아 교육 문제를 풀어나가는 일도 조금씩 추스려가야 한다. 몸이 두 개라도 부족할 지경이다. “농촌 문제의 핵심은 농사를 지어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경제활동이 안 되니까 모두 농촌을 떠나는 거죠. 아직 저도 해답은 없지만 제 아들 ‘희망이’를 보면 무언가 될 것 같아요.” 윤 씨 부부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다시금 미래의 희망을 확인한다.

글=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opia.com  
사진= 임민수 기자 yminsoo@buddhopia.com

◇“내년 봄이면 이 놈들이 우리 논 of 김이랑 김은 다 먹어 치울 겁니다.” 윤종상 씨가 목표로 한 무농약재배에 쓰일 우렁이들을 들여 보여주고 있다.